■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시설 선정 심의
ㅇ 회의일시 : 2024년 03월 22일(금) 14:00~17:00
ㅇ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영직, 권미선, 이상수, 이용훈, 정우영

그동안 도서관과 문학관, 지역서점 분야에서 각각 조금씩은 다르게 지원되던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올해는 문학기반시설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했다. 이 사업은 문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기반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문학을 향유하고 그 영역을 넓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8년 전부터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차츰 그 대상 기관을 확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문인은 참여 기관에 속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창작과 문학 관련 활동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참여 문인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졌다. 사업 수행 기관들은 문인과 함께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과 다채로운 문학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작년까지 대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대상 기관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수행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 문학기반시설의 차이보다는 문학의 본질적 활동에 더 집중하고, 더 다양한 문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과 문학관, 지역서점 등의 운영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여러 문학기반시설들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져 전국적으로 문학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올해 사업에는 161개 문학기반시설이 응모했다. 이들 중 필수제출 서류 누락 등 행정결격 사유가 있는 23곳을 제외한 138곳의 문학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사업공모 안내에서 밝힌 바대로 문학기반시설의 시설과 특성화 수준(40%),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30%),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와 기대성과(30%)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본 사업은 문인이 상주해서 창작을 하는 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공간 여부가 중요하다. 공간의 확보 여부와 함께 제시한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확보 여부도 확인했다. 또한 제안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현시대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해당 문학기반시설이 지향하는 바와 잘 맞을 것인지를 집중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의 경험이나 의지 등도 고려했다. 문학 활성화에 있어서는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문인과 시설, 담당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학 향유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심사의원이 각자 꼼꼼하게 서류를 살피고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문학기반시설 70곳을 정하였다.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소규모/소멸지역>지역>민간 순으로 정했다. 선정된 시설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고려해서 지원 대상 시설의 15% 수준에서 예비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당초 각 시설 간 공간 등 하드웨어나 운영 경험, 특성 등이 크게 달라 자칫 특정 시설에 치중하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했지만, 실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들이 각 부문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기획 등이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도서관의 규모와 소

재 지역 등에 따른 기본적인 가능성의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문학관은 그 자체가 문학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인만큼 앞으로 문학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사업이 지향하는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서점 경우에는 상업공간이기는 하지만,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이면서 지역주민들과도 긴밀하게 만나고 있는 시설이기에 공공성을 인정해서 지속적으로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도(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신청받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서점이 보다 더 문화시설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는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본 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해 기존에 비해 작가의 인건비를 상향(월 220만원→240만원)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문학기반시설도 본 사업 추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더 풍성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문학기반시설 모두는 제안한 사업을 함께 잘 추진할 문인을 차질없이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종종 상주작가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이나 행정 지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그런 지적 없이 상주작가들이 문학 활성화 사업의 핵심 주체이자 기관 활동의 동반자가 되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가급적 사업담당자가 교체 없이 안정적으로 문인과 협력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참여 문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문학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지원 대상시설을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설들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과 문학관, 지역서점 등이 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의 교류를 강화하고 더 단단한 연대와 협력의 기회로 삼아 갈 것으로 기대하고 당부한다.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셨을 모든 문학기반시설을 다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 그런만큼 올해 선정된 기관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이 문인과 문학기반시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증명해 내년 이후 사업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계속해서 더 많은 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도서관이나 문학관, 지역서점 등에 대한 기존의 지원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모에 지원해 준 문학기반시설과 관계자들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정한 작가 선발이 이루어지고, 문학기반시설-작가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문학 독자들을 발굴하여 문학 대중화가 전국 곳곳에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